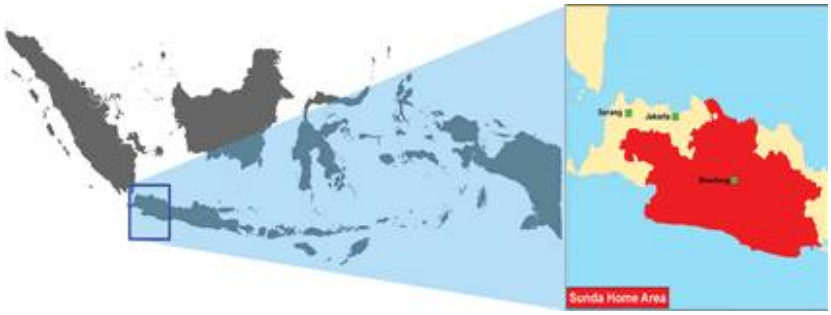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순다(Sunda)족



인 구 : 32,000,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인도네시아의 서쪽의 자바섬
언 어 : 순다어
종 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06%
성경번역 : 전권(1991)

개요 / 역사

순다(Sunda)족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며 서부 자바에 그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타나 빠순단(Tanah Pasundan: 순다인의 땅)이라 부르며 자바인, 반뜬족, 바타위족, 쿨롱(Kulon)의 해안가 자바인들과 인접해 살고 있다. 순다족은 쁘리안간(Priangan) 혹은 빠라얀간(Parahyangan) 으로 불리기도 한다. 역시 순다어를 사용하는 바두이(인구 5,000명 이상)인들 또한 이슬람화, 문명화되기 이전부터 순다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생활양식

오래 전부터 순다족은 대부분 자바 섬 서부에 살지만 중앙 지역에도 흩어져 있다. 전통적으로 순다족은 자바 섬 서부의 비옥한 땅에서 농사로 자급자족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국가 차원의 곡창지로 잘 알려져 있다. 쌀농사 이외에도 대단위 차 농장들이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용작물과 각종 과일들도 풍부하다.

순다족은 매우 친절한 민족으로 특히 의복, 농업기술면에서 자바족과 매우 흡사하다. 자바족이 비교적 격식을 중요시 여기고 계급적인 사회 풍조인데 반해 순다족은 보다 개방적이며 더 가족 중심적이다. 또 다른 점은 순다족이 자바족 보다는 이슬람을 강하게 신봉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건강하고 선하며 의롭고 내성적인 성품을 지녔으며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특징은 사라카나가라 왕조 Salakanagara (130-362 AD)때부터 서부 자바족들이 추구하던 것이다. 그들이 자바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다족 사람들은 그들이 '자바'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순다족의 땅(tatar Sunda)'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부 자바에서 동부 자바나 내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순다의 당'에서 '자바'로 이주했다고 말할 정도이다.

산업화와 대규모 택지 개발은 순다족의 생활양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많은 순다인들은 더 이상 농부로 일하지 않고 있다. 일부 순다인들은 교역에 능한 무역업자가 되어 정부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순다족 사회에는 3부류의 영향력 있는 세력이 있다.

(1) 끼아이(kiai), 우스따즈(ustadz) 회교 교사, 이맘(imam: 회교 의식을 관장하는 성직자)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2) 지방 정부 관료들

(3) 정령 숭배나 주술 치료사인 두꾼(dukun) 혹은 전통 무예사인 쁜짝실랏(pencak silat) 등이다.

종교

순다족 대부분은 무슬림들로 대개는 순다의 전통 문화와 혼합된 이슬람의 성격을 띤다. 이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영적 융화를 갈구하는 전통 의식들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고똥로용(gotong royong: 상부상조)을 통해 나타난다. '루뚱까사룽(Lutung Kasarung: 긴 꼬리 원숭이)' 설화에는 신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미물로 성육신했다는 믿음이 나타나 있다. 이 성육신을 '데와따(dewata: gods and goddesses)'라 부른다.

필요

서부 자바의 통계 자료에 의하며 이 지역의 빈곤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순다족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농업투자와 근대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수공예품 소매업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http://ko.etnopedia.org
http://www.joshuaproject.net